Sons of Slavery, Sons of Freedom 종의 자녀, 자유의 자녀 (갈 4:21-31)

The Seduction of Spiritual Slavery
As we've been working our way through Galatians, we've seen Paul's urgent priority of countering the false teaching that was leading them astray. Simply put…..the heretics were saying that obedience to the Jewish Law was a necessary addition for the Galatian Christians to be 'justified' … ie — the way guilty sinners are declared 'not guilty' before God.

Two weeks ago in the final evening service of the year, Paul began the previous passage by saying that when the Galatians were ignorant of God, they'd been enslaved to idols.

On receiving the gospel of grace, God had set them free from the spiritual slavery of paganism. But they'd begun to become enslaved again by believing the Judaizers….thinking that religious works could justify them. So Paul pleaded with them by reminding them of their beginning with grace & pointing out the false motives of the heretics…

This week we pick it up with Paul reasoning from the law — to show that even Abraham & his family — the very ones in whom the Judaizers were boasting — show that the law enslaves.

How could the Galatians who'd been set free from spiritual bondage of idols by the gospel of grace be lured into slavery again? How could anyone who has come to Christ fall into the bonds of thinking our standing before God is based on our rule-keeping….our decency….our degree of goodness?

영적 종된 삶의 유혹.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대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말하기를, "칭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2 주 전 마지막 저녁 예배 설교 구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에게 종 노릇 한다는 말씀과 함께 시작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숭배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인들을 신뢰 하여, 종교적 공로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한번 옛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리다아 교인들에게 처음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상기 시키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번 주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에 관해 설명하고, 이런 설명의 목적은, 유대교인들이 그토록 자랑 하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까지도 율법의 종이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런 옛 종의 삶에 현혹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C.S. Lewis, “There is no fault which makes a man more unpopular, and no fault which we are more unconscious of in ourselves…The vice I am talking of is Pride or Self-Conceit: and the virtue opposite to it… is called Humility…it was through Pride that the devil became the devil …. it is the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How could you or I fall into spiritual slavery….into self-conceit? By thinking that we never could. In the previous passage we see the false teachers appeal to the Galatians’ pride, ‘they make much of you.’ Their false gospel also appealed to human pride, ‘you can contribute to your acceptability before God.’ So Paul gives them, & us a reality check: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those who are in spiritual slavery, & those who are free. He opens with a question….v21, ‘Tell me, you who desire to be under the law, do you not listen to the law?’

The false-teachers’ appeal to the Galatians’ pride had some success in arousing a desire for them to be under the law — so Paul gives them a lesson from the law of Moses — what it teaches about itself

Philip Ryken: ‘The false teachers had probably told the Galatians something like this about Abraham: “When God first made all His covenant promises, He said they were only for Abraham and his children. We are Abraham’s children because we are his direct descendants through Isaac. But you can receive the promise, too. All you have to do is become a child of Abraham in the Jewish way, by being circumcised’ and by obeying the Jewish religious calendar.

C.S. 루이스"*사람을 더 인기 없게 만드는 결점 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의식하지 못하는 결점은 없다…내가 여기서 말하는 악덕은 오만 또는 자기 자만이라는 악덕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미덕은 겸손이라고 불린다… 악마가 악마가 된 것은 교만을 통해서였다…*"”

어떻게 당신이 혹은 제가 자기 자만, 영적 종살이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함으로, 자기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앞의 구절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만에 빠지게 함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17 절에 말씀과 같이 그들에 대하여 열심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용인 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그들과 우리에게 참된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영적 종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그는 21 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이 교인들의 거만함을 공략 하였고, 이들이 율법 아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려 함으로 이런 공략은 꼬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언약의 약속을 만드셨을 때, 이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유대인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육체적 자손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이런 약속을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살아,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절기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In 3:29 Paul has already said that ‘if you are Christ’s then you are Abraham’s offspring, heirs according to promise.’ Here he shows how that is the case — from history — from the types that history prefigured & — personally for the Galatians

He begins by teaching them what the law says about itself, historically

Resist Slavery by Understanding History (22-23)
v22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one by a slave woman and one by a free woman. But the son of the slave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while the son of the free woman was born through promise.’

The situation in Genesis was that ‘God had promised to make Abraham into a great nation, but he still didn't have any children. The name ‘Abram’ means, ‘exalted father’ … The father by name was fatherless by nature! His wife was barren & he was in his mid-eighties!…Her biological clock humanly speaking had ticked & his had all but stopped. Year after year Sarah longed for a baby…she lost hope

Then in desperation she said, (Gen 16:2) ‘the Lord has prevented me from bearing children. Go in to my servant; it may be that I shall obtain children by her” So Abram, only too willing to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s obeyed.

Sarah’s servant — the Egyptian woman, Hagar—conceived & gave birth to a son called Ishmael. But God hadn’t forgotten His promise. He came to Abram again in Gen. 17 where he changed his name from ‘Exalted Father’ to Abraham, ‘Father of Many’…

이미 바울은 3:39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여기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세 주제로 증명해 나아갑니다: 역사적, 예표적 그리고 개별적.

역사를 이해함으로 종살이에 대적하다 (22~23 절)
22~23 절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세기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으나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고, 그는 이미 80 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생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그녀는 소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라는 창 16:2 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아내의 말을 따릅니다.

사라의 여종은, 애굽에서 온 “하갈”이라는 여인이였고, 그녀는 임신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창세기 17 장에서 다시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After that, God say, "'I will give you a son by her. I will bless her and she shall become nations.'" So, Sarah conceived on the basis of the promise at age 90 & gave birth to Isaac.

Now Isaac & Ishmael shared similarities….. The same biological father. Both circumcised. They both grew up in the same home.

Though there were vital differences between them.Because they each had a different mother they inherited two different legal standings. Ishmael's mother was a slave, so he was born a slave. Isaac's mother on the other hand was free, so he was born free.

The other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m was the manner of their births. Ishmael was born in the 'ordinary way' — 'according to the flesh'…regular conception.
Isaac on the other hand was by contrast, 'born as a result of a promise'…or as v29 says 'according to the Spirit'. Isaac's birth was by God's supernatural intervention.

Sarah was 90 & Abraham was 100 but God was faithful to His promise. She bore Isaac by the power of the Spirit revitalising her old body.

When Abraham got Hagar pregnant, he was operating on the principle that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With Hagar's pregnancy…..it was a case study of Sarah & Abraham trying to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s to achieve the blessing, rather than waiting to receive it. Whereas Isaac was a gift, Ishmael is what Abraham got for trying to do things his way instead of God's way.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 17:16 절에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사라는 이런 약속에 기반하여 90 세라는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같은 아버지로 부터 왔고, 둘 다 할례를 받았으며, 둘 다 같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둘의 어머니는 달랐고, 이 둘은 각각 다른 법적 지위를 물려받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종이였기에, 이스마엘 또한 종으로 태어납니다. 반면 이삭의 어머니는 자유인 이였기에, 이삭 또한 자유로운 자로 태어납니다.

이 둘의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출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보편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삭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으며" 또는 29 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는 90 세, 아브라함은 100 세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녀는 늙은 몸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임신시켰을 때, 그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갈의 임신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림 가운데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복을 성취하려 했음을 드러냅니다. 이삭이 선물이었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따른 삶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was a fundamental spiritual difference b/w the two sons. One was born by proxy, the other by promise. One came by works, the other by faith. One was a slave, the other was free. So, Ishmael & Isaac represent the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try to attain salvation through their own efforts of law-keeping; the others who trust in God's promise. One is works-righteousness; the other is grace. Self-reliance V divine dependence.

The Lord puts this challenge before each of us now….spiritually speaking, do we believe that these the only two categories of people in the world? Sons or heir of freedom….or sons of slavery? If Jesus Christ is our Lord & Saviour then we are sons of freedom. If not….the only alternative is to be a son of slavery…

Those of us who are free are regularly tempted. We resist by understanding that the original heir of freedom came by grace alone.

Resist Slavery by Understanding Typology (24-27)

- Old Covenant: Hagar

We also resist by understanding the OT patterns
v24, "(Now) this may be interpreted allegorically: these women are two covenants. One is from Mount Sinai, bearing children for slavery; she is Hagar. Now Hagar is Mount Sinai in Arabia; she corresponds to the present Jerusalem, for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시작 때부터 이 두 아들 사이에는 매우 근본적인 영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대리모로, 다른 한 명은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공로와 다른 한 명은 믿음으로 태어났으며, 또한 한 명은 종으로, 다른 한 명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 세상의 두 분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한 분류는,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며, 다른 분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류는 자기 자신의 공로의 의를, 다른 분류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약속의 자녀 혹은 종의 자녀로 나뉜다는 사실을 믿나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의 자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와 반대인 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로서 종종 유혹에 놓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 신분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 이런 유혹에 싸워나갑니다.

예표를 이해함으로 종살이에 싸워나가다. (24~27 절)
24~25 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Paul says it may be taken ‘allegorically’… though the word to understand what Paul means in this case, is ‘typology’ where the characters stand for two ‘types’ or kinds. Paul starts with their mothers…that represent two covenants.

Hagar stands for Mt Sinai…the mountain in Arabia where God gave the law to Moses. Those who are her offspring…like Hagar the slave, are also in slavery. Paul moves from the ‘types’ of Sinai, Hagar & Hagar’s offspring symbolising slavery to…the fulfilment of the type — the ‘present Jerusalem —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We know that Jerusalem ~ 50 AD when Paul was writing to the Galatians had largely rejected Jesus….though the early church had been rapidly growing & seeing many Jews come to Christ…..the Jewish establishment with the majority who followed it were opposed to Christ….as had been the case 20 years earlier when Jesus had been crucified. That spiritual corruption had infected the Judaizers who had unofficially come from the mother church in Jerusalem…by saying that Jerusalem corresponded with Hagar, Paul was effectively saying that the Judaizers — contrary to their boasting, were slave children, the “Ishmaelites”…

The Ishmaelites remember were even known by the second generation as slave traders who sold Joseph to Egypt…Psalm 83:6 says that they joined the ranks of nations trying to destroy Israel. This would have come as a surprise to those who’d begun to believe the false teachers…Non-Christian Jews generally & the Judaizers particularly prided themselves on being true sons of Abraham …

여기서 바울이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는 “예표”와 같은 단어로, 특별이 두 가지 예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하기를, 이 두 어머니는 각각 두 가지의 언약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하갈은 시내산을 대표하며, 이는 아라비아에 위치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장소입니다. 이런 하갈의 자손들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종의 신분입니다. 바울은 이런 종 살이를 상징합니다.

50AD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비록 많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대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은 20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유대교적 사고로 교회의 영적 부패를 이끌었던 자들에 대해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자랑함과는 달리,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좋게 인식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은 노예 무역상으로 기억되고, 시편 83:6 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을 “이스마엘”로 비유함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교인은 자신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We remember John the Baptist's word to the Pharisees & Sadducees….Matthew 3:9. Also recall Jesus in John 8:39ff. What mattered in God's eyes was ultimately being Abraham's spiritual sons….sons of faith….sons of grace. The Galatians being lead astray were in fact like Ishmael….

Since they were giving up the gospel to go back to the law, these Galatians who were believing them were sons of Hagar rather than children of Sarah…still in spiritual bondage…The same is true of any who think being right with God is conditional in any part by rule keeping, religious adherence or simply having virtue & resisting vice. In contrast…..

- New Covenant: Sarah

v26, "(But) the Jerusalem above is free, and she is our mother. For it is written, "Rejoice, O barren one who does not bear; break forth and cry aloud, you who are not in labor! For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one will be more than those of the one who has a husband."'

Paul continues his reasoning of the types or kinds….this time those who represent freedom. Jerusalem 50 AD was enslaved to law — spiritual heirs of Ishmael compared to Jerusalem that is above — like Sarah — the mother of all who are free… The Jerusalem 'above' is not just for the future. God has already been building His eternal city…… Heb. 12:22. The spiritual Jerusalem has superseded the earthly Jerusalem.

우리는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9 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39 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무슨 말씀을 하셨는기 기억합니다.

마 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 8: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사라의 자녀가 아닌 하갈의 자녀라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지키거나, 도덕적 선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다 믿는 자들 또한 하갈의 자녀인 것입니다.

새 언약: 사라

26~27 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표에 관해 설명하고, 이제는 하갈과 반대로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인 사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씀할 때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짓기 시작하신 영원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영적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대체한 것입니다.

The promises of the OT weren't only for the Jews, as we've been seeing with Isaiah's servant songs….. They are fulfilled in every Jew & Gentile who believes on the gospel of God's grace in Christ alone.

Anyone who does, becomes a son or daughter of Sarah — a true child of Abraham…citizens of the eternal city…heirs of eternal glory.

Isaiah's quotation while thinking of Sarah in her barrenness, is primarily about the city of Jerusalem…though desolate from the 6th C BC exile….it would be renewed. Just as God by His promise would see Sarah more fruitful than Hagar….so by God's promise, His people would one day be free

Though a faithful remnant would return to Jerusalem under Cyrus 538 BC…The time of joy that Paul says Isaiah prophesied is the New Covenant — = the 'anti-type' or fulfilment of the type that Sarah as the free woman represents….God is true to His promises with Abraham's spiritual descendants = Sarah's children = New Covenant community in Christ as numerous as stars in the sky….= all who trust Jesus Christ as Lord & Saviour

Embrace Freedom by Applying it Personally (28-31)
v28, "Now you, brothers, like Isaac, are children of promise. But just as at that time he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him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Spirit, so also it is now."

Sarah's son, Isaac was the child of the Spirit …. not of the flesh that represents human effort of law-keeping,

구약의 약속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종의 노래를 통해 보았듯이,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믿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사라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고, 영원한 도시의 시민이며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이사야가 불임 가운데 있던 사라를 생각할 때, 비록 지구상의 예루살렘은 기원전 6 세기에, 황막하게 될지라도, 참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갈보다 사라를 더 번성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중 신실했던 자들은 키로스왕의 때인 538BC 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오지만, 이사야의 예언가운데, 바울이 언급하는 기쁨의 때는 바로 새 언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는 자유인이었던 사라가 예표하던 것의 성취이며,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고, 그 약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참된 약속의 자녀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으로 자유를 포용하라 (28~31)
28~29 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라의 아들이 이삭은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육체의 자녀가 아닌, 영적 자녀였습니다.

As son of the promise, Isaac represents grace.

The pattern of persecution is the same as it was at the beginning. The incident to which Paul refers is a single verse in our OT reading — Gen. 21:9 where the teenage Ishmael was laughing in a mocking way at newly weaned Isaac. The one who was born of the promise ie 'according to the Spirit' received the scorn of the one born 'according to the flesh.' The Judaizers in the same way were persecuting the true believers of Galatia.

Paul tells them what the law itself advises them to do with these self-promoting spiritually elite…v30, '(But) what does the Scripture say? "Cast out the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e slave woman shall not inherit with the son of the free woman." So, brothers, we are not children of the slave but of the free woman."

The pattern of Sarah's word to Abraham from Genesis 21 was fulfilled now Paul repeated the command to the Galatians …. personal application. Effectively saying, "Expel the false teachers from your midst" … to apply who they are.

While the Lord calls us to remain intolerant of any teaching that tries to add works to grace….

Resist Slavery, Embrace Freedom
Spurgeon, "Beware of no man more than of yourself; we carry our worst enemies within us." How could we fall into spiritual slavery? By thinking that we never could. Resist it by acknowledging our own tendencies to pride.

약속의 자녀로 이삭은 은혜를 대표합니다.

이때에도 핍박의 패턴은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9 절에서 보듯이 10 대였던 이스마엘이 젖을 뗀 이삭을 조롱함 가운데 비웃었듯이, 약속에 때라 성령안에서 난 자도,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경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 또한 갈라디아의 참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영적 엘리트들과 관련하여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는지 알려 줍니다. 30~31 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창세기 21 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라의 말은 성취되었고, 이와 같은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를 쫓아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람의 공로를 더하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종 됨을 저항하며, 자유를 포옹하라.
스펄젼 *"다른 사람보다 너 자신을 더욱 조심하라, 우리는 가장 큰 적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종의 삶에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교만한 성향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물리치십시오.

Flee that bondage by knowing from history & the patterns God wove into it that being an heir of freedom could only come by grace. Embrace the freedom of the promise that all who look to the Son who purchased our freedom are forever free.

자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움으로 이런 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다는 이 약속을 포옹하십시오.